

'명품 신도시' 수완 분양률 '굉충'

호남지역 최대 택지로 조성되는 광주 수완지구가 극심한 지방 주택 시장 침체 속에서도 참어 건설사별 분양률이 대부분 60%를 넘어서면서 신도시 조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완지구 2차 분양의 경우 지난해 1차 분양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와 좋은 조건의 입지 등이 부각되면서 해당 분양물량은 물론, 기존 1차 분양 아파트의 꾸준한 분양률 상승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30일 광주시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14개 업체가 분양에 나선 수완지구 조성 사업이 각 업체별로 50~80%의 분양률을 기록하며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영부건설이 179세대 가운데 83.2%(149세대)가 분양됐으며, ▲모아건설 79.8% ▲(주)현진 77.9% ▲코오롱건설 73.4% ▲

주택시장 침체속 전체분양률 50~80% 달해

품질·가격 '만족'... 대주피오레 2차분도 인기

새한건설 72.3% ▲대주건설 71.2% ▲신아건설 69.3% 등이었다.

이는 업체별 분양률이 30~50%에 그쳤던 초기분양 당시보다 절반 이상 계약자가 늘어난 것으로, 올해 본격적인 신도시 건설 돌입 이후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일단 '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반응이다. 업체별 규모나 브랜드 인지도 등에 따라 분양률의 차이가 크지만, 현재의 분위기가 입주 때까지 이어진다면 '분양률 100%'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완지구의 경우 462만㎡(140만

평)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라는 점을 비롯, ▲105만6천㎡(32만평) 규모의 '녹색단지' 조성 ▲11만5천500㎡(3만5천평) 규모의 복합 쇼핑몰 입점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통한 호남권 첫 지역난방 도입 등 빼어난 주거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 수완지구는 전용면적 85㎡(25.7평형) 이하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으로 꼽힌다. 지역 내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 3.3㎡(평)당 550만원 이하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다. 실제 광주는 지난해 말 일부 아파트의 분양가가 3.3㎡(평)당 800만원을 넘어서면서 '고분양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수완지구의 분양가 '메리트'는 지난 5월 대주건설의 2차 분양물량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차 분양보다 신평면과 마감재 등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상황에서 2차 분양가는 3.3㎡(평)당 550만원선이 유지되면서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이다.

현재 수완지구 2차 분양은 비수기인 7월 말에도 매일 4~5세대의 계약이 이뤄질 만큼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일부 1차분 계약자들의 경우 추가금액을 부담하더라도 2차 분양 물량의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신규 물량을 중심으로 '인기 물이'에 한창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협 외국인 이주여성 돕기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30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지역본부에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 이주여성 28가족에게 항공권과 체재비 등을 전달하는 등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5.1% 올랐다

제주권만 올 2월보다 0.3% 하락

전국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 올 2월보다 5.1% 상승했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166개 골프장의 332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올 7월 1일 기준의 실거래가를 올 2월에 고시했던 308개 회원권 중 3개는 변동률 통계에서 제외됐다.

골프 회원권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실거래가액이나 시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된다. 새로운 기준시가는 8월 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열람할 수 있고, 8월 1일 이후 양도·증여·상속하는년부터 적용된다.

기준시가는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거래시가의 90%(시가 5억원 이상은 95%)를 반영해 산정됐으며, 고시 대상은 올 2월 1일에 비해 골든비치C.C 등 8개 신규 골프장의 11개와 기존 9개 골프장의 13개 등 24개 회원권이

올라갔다. 새 기준시가(신규 회원권 제외)는 올 2월의 고시 때보다 평균 5.1% 올랐고, ▲상승 154개 ▲하락 36개 ▲보합 115개였으며 2월에 고시했던 308개 회원권 중 조정 중인 3개는 변동률 통계에서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권이 고가회원권을 중심으로 8.0% 상승했고, 충청(4.3%), 강원(3.8%), 영남(0.9%), 호남(0.4%) 등은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제주권은 신규 골프장 개장으로 0.3% 하락했다.

회원권 가격대별로는 ▲5억원 이상(21개) 11.7% ▲4억원 이상(11개) 15.2% ▲3억원 이상(26개) 8.7% ▲2억원 이상(42개) 6.1% ▲1억원 이상(64개) 4.5% ▲5천만원 이상(67개) 4.0% ▲5천만원 미만(74개) 1.5% 등으로 집계돼 4억원 이상 고가 회원권의 기준시가 상승 폭이 컸다. 연평균

여수산단 대기업 노사

올 임단협 난항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일부 주요 대기업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과 여수 산단 등에 따르면 여천 NCC와 호남석유화학, 한화석유화학, LG 석유화학 등 일부 대기업 노사의 임금 차이가 커 올해 임·단협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천 NCC 노사의 경우 최근까지 13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노조는 임금 7.0%(기본급 기준)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1.5% 인상을 고수해 임금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천 NCC 노조는 최근 임금 협상 최종 결렬 선언을 하고 이번 주 중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석유화학 노사도 최근까지 8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노조는 임금 7% 인상을, 사측은 동결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화석유화학 노사도 최근까지 8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노조는 임금 8.42% 인상을, 사측은 동결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광주·전남 7년간 '고용없는 성장'

韓銀 고용동향 분석

2000년 이후 광주·전남지역의 고용사정은 실업률 하락과 고용률 상승 등으로 지표상으로는 호전됐으나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등 체감 고용사정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내총생산(GRDP)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이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현상이 뚜렷하고, 취업자들도 농림어업 종사자가 많고 고령화가 심해 부가가치 창출이 힘든 고용구조를 드러냈다.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7년 상반기까지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3~2006년중 지역내총생산은 연평균 3.0% 증가했으나 취업자수는 2002년 158만4천명을 정점으로 올 상반기에는 154만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지역내 성장률이 제조업 성장률을 상회하는 등 오히려 하회하면서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또 1차산업인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18.7%로 전국 평균(7.7%)의 2.4배에 달하면서 실업률 하락과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 고용 지표 호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인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오히려 전국 최저 수준을 보여 체감 고용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전국 최저수준인 실업률(2.8%)에도 불구하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전국 평균(7.9%)을 상회한 8.5%를 기록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농협 고객만족 평가

전남 1위·광주 3위

농협 전남본부와 광주본부가 2007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농협 전남본부와 광주본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전국 16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전남본부는 1위를, 광주본부는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전남본부는 친절성, 정확성, 전문성, 정보제공, 객장 환경 등 8개 항목에서 1위를 한 데 힘입어 전국 순위 올랐고 2위는 제주본부, 3위는 광주본부가 차지했다. /이종태기자 jitee@

명품공공요리의 길고 풍부한 자연의 맛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농협농원**

농협농원(주) (062)972-5254

당신을 고용 노동 최고의 VIP로 모십니다

34~48세

062-7402-7

Science Communication Lab. Manager 교육과정 추가 모집

062-7402-7